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배관겸 프란치스코 (1740-1800)

충청도 당진의 진목 출신인 배관겸은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입교하였다. 그는 1791년 신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석방된 적이 있는데, 이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느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리고 면천의 양제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일구었다.

1798년 10월 3일, 배관겸은 어느 밀고자의 신고로 체포되고 만다. 혹독한 형벌을 당해 온몸의 살이 헤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져 뼈가 드러날 정도가 되어서도 이번엔 영웅적인 인내로 모든 고통을 참아 내었다. 결국 형리들의 매질이 계속되면서 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0년 1월 7일, 그의 나이 60세가량이었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성령 강림 대축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 1ㄱㄴ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또는 ◎ 알렐루야.)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2독서

1코린 12,3ㄷ-7.12-13 (또는 로마 8,8-17)

부속가

오 소 서 성 령 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 버 지, 오 소 서 은총주님, 오 소 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 로 자 영 혼 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돌주소서.
일할때에 휴 식 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 로 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주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요한 20,19-23 (또는 14,15-16.23ㄴ-26)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층방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의 후속 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도 1,1에 언급되는 “첫 번째 책”이 바로 루카 복음서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서의 맺음말 대목인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1,2).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단을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여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을 서술합니다.

사도 1,1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하늘만 보고 서 있자 천사가 나타나 질책합니다. 하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 때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8절)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 순서대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온 세상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五旬節)인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주간절”(週間節; 신명 16,9-12)과 같은 명절입니다. 주간절은,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일곱 주간 곧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맞는 명절입니

다. 이것이 제2성전기에 들며 ‘오순절’로 호칭이 바뀝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퍼뜨린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이를 그리스어 [펜테코스테] (Πεντηκοστή)라 칭한 까닭입니다. 이 명칭이 우리말 ‘오순절’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오순절에 사도들이 이층방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납니다(사도 2장). 주간절은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하느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아온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셋째 달’(탈출 19,1)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첫째 달 중순’(12,2.6)부터 약 50일째 날에 해당합니다. 이런 병행성을 시사하듯, 사도 2,2-3에서는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내려앉았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시나이산으로 내려오실 때 우렛소리와 더불어 불 속에서 현현하셨듯 말입니다(탈출 19장). 더구나 모세가 주간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강림은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께서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며 새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 사건처럼 묘사된 셈입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 주간절의 의미를 완성한 오순절을 다시 맞이하며, 우리 모두 교회의 생일인 오늘을 기념하고 축하합니다. ☺



교회는 가시적이고 영적이다(1)

「교회헌장」 8항 전반부

「교회헌장」 1장은 제목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8항에서는 교회가 영적이면서 동시에 ‘가시적 구조’를 가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신비가 교회의 신적 공동체성만을 가리키지 않고, 교회의 사회적인 구조 차원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가시적 구조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시적 구조란 교회가 “교계 조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며 “가시적 집단”이고 “지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영적”이고 “천상의 보화로 가득 찬” 교회와 달라서,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를 함께 갖고 있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는 교회를 조직과 공동체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으로, 조직은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조’는 교회를 조직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 조직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가시적 조직이 영적인 공동체와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강생의 신비가 그러하듯 교회의 “사회적 조직”도 그리스도의 성령께 봉사하여 그 “몸”(공동체)을 자라게 합니다.

이러한 가시적이고 영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unica Christi Ecclesia)이며, 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사목을 맡기셨고, 사도들에게는 교회를 온 세상에 전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주셨으며, 교회를 영원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1티모 3,15)로 세우셨습니다. 이

유일한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그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들이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subsistit in Ecclesia catholica)합니다. 「교회헌장」의 초안에는 ‘가톨릭 교회이다’(est)라고 되어 있었지만, 공의회는 가시적 실재인 교회와 영적 실재인 교회가 지니는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다’(est) 대신 ‘안에 존재한다’(subsistit in), 곧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existit in)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레오 14세 교황이 5월 14일, 일반 알현 중 동방 가톨릭교회의 희년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신학위원회의 보고서는 ‘교회의 신비’가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상(像)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톨릭 사회 자체에 존재한다(existit)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실로 이 표현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교회적 요소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그 조직(compago) 밖에서도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가 발견”된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어진 고유한 선물이기에 가톨릭 교회와 그 밖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일치를 향해 나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 일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

“아무쪼록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더라도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디 참아주십시오.” (2코린 11,1)

요양원에 계시다가 건강 악화로 입원한 80대 남성 환자와 그의 보호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없이 지내다가 가족을 알아볼 정도로 회복한 다음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재활하고 있었다. 환자의 아내는 그때부터 환자의 곁을 지키느라 요양원에 출퇴근하듯 매일 다니고 있었다.

“남편의 연명치료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절대 안 된다면서 막아서고 있어요.” 나는 환자의 아내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이걸 꼭 해야 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아이들 편을 들고 있어요.” 의사가 아직 환자의 상태를 ‘임종 과정’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한 나는 환자의 아내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거부하신다고 한 연명치료가 어떤 거예요?”

“며칠째 의식도 없는 남편한테 콧줄을 끼우겠대요. 제가 그동안 요양원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요?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목숨 붙여놓는 건 누구에게도 못 할 짓이에요. 정말 이쯤에서 보내주고 싶어요. 남편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반대만 하지, 의사 선생님도 이제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지...”

환자의 아내는 숨도 쉬지 않고 한 바닥의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그리고 나 역시 질세라 곧바로 연명치료에 관해 설명해 대기 시작했다. “콧줄을 끼우는 건 비위관 삽관이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니에요. 윤리신학에서도 위가 기능을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끓기는 거라고 해요.” 잠자코 듣고 있던 환자의 아내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 이랑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제도 작은 애가 아버지 이대로 끓겨 죽일 작정이냐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는 말자고 전부터... 아무도 몰라요. 이런 제 마음... 흐음.”

환자의 아내가 갑자기 무너지듯 울어버리니 나는 조금 전까지 머릿속에 잔뜩 쌓아두었던 말들을 더 꺼낼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작은 애’ 편에 서서 환자를 끓기는 건 어리석고 매정한 일이라고 몰아세워서라도 설득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로서 사랑하는 남편을 조금 일찍 보내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어머니’가 내 앞에서 지쳐 울고 있었다. “남편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내로, 또 아이들이 아픈 부모를 부양하느라 제 삶을 살지 못할까 걱정 가득한 어머니로 지금까지 버티어 내고 계셨네요. 모두에게 악역을 자처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던 환자의 아내가 확인하듯 나에게 물었다. “신부님, 아무래도 남편이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지금은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부모 노릇이겠지요?”

거짓 사도들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던 바오로 사도가 그랬듯이 환자의 아내 역시 그저 좀 참아주길 바랐을 뿐인데, 오늘도 나는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들다 그녀의 지친 마음에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



교구 소식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500차 토요일기도회>

일시 6/21(토) 15시 (16시 주일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미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와 사제단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6/13(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31-850-1468 성소국

중등부, 고등부 1~2학년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6/15(주일) 10시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월간성서 <6월호>

구약에서 신약까지 -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

일정 6/5(목), 12(목), 19(목) [총 3회]

강사 강주현 요한 신부 (끈베평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시청 ▶



청년센터 프로그램 - 청년 피정 바오로딸 Hope Stay

한 달에 한 번, 고요함 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6/20(금), 7/4(금) 20시~21:30 /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6/27(금), 7/11(금) 20시~21:30 /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대상 만15세~45세 (무료)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내용 ▶



청년 전례 아카데미 2 - 르네상스와 성 베드로 성당

B차: 6/21(토) 15:30~17시 /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일산)

강사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 및 건축신학연구소 소장)

대상 청년 및 교리교사 (선착순 30명)

회비 1인 2만원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

신청 ▶



의정부교구청 홍보국 직원 모집 - 육아휴직 대체

업무 디자인 및 일반사무 [계약직]

자격 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근무 2025년 8/25(월) ~ 2027년 1/8(목)

접수 7/4(금)까지, 이메일 jubo@uca.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분당신부님 추천서, 졸업증명서, 포트폴리오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6/13(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010-2127-0032

주말 성령묵상회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일시: 6/21~7/26, 매주(토) 13시~16:30 [6주간]

장소: 성령쇄신봉사회 가능동 교육관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90)

회비: 2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10-9697-9004

두근두근 성가정을 위한 1일 피정 - 인격

일시: 6/15(주일) 10시~17시, 합정 ICPE센터

문의: 010-5646-6594, ICPE 플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교구성지순례(추자도포함):

7/1(화)~4(금), 9/7(주일)~10(수)

여름피정(우도섬포함): 7/18(금)~20(주일),

7/22(화)~24(목), 7/26(토)~2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교부들의 가르침 - 2차

일시: 7/2(수) 15시 ~ 3(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형성센터

강사: 최원오 빈첸시오 교수

회비: 12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성체성혈 대축일 대피정

일시: 6/23(월) 13시~16시

장소: 명동대성당 / 회비: 3천원

주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강사: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임승철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추기경님 외 사제단

주최: 서울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문의: 02-773-3030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고난은 진정 하느님의 끈인가

일시: 6/14(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매월 첫화요 오후 피정 - 마리아니스트센터

예수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

일시: 6/10(화), 7/1(화) 14시~16:30

장소: 마리아니스트 센터 (덕양구 호수로 76-13)

내용: 묵주기도, 성체조배, 영성강의, 미사, 안수

강사: 장희성 프란치스코 신부 (마리아니스트센터 관장)

문의: 010-9585-6283 (무료 피정)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아름답게나들이기 피정: 7/4(금)~6(주일) [2박3일]

예수마음기도: 7/10(목)~12(토) [2박3일]

영신수련피정: 7/23(수)~27(주일) [4박5일]

여름청년침묵피정: 7/18(금)~20(주일) [2박3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서강대학교 -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일시: 6/16(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주제: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사: 송봉모 토마스모어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강의 무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6/14(토) 10시, 풍동 성당

6/21(토) 10시, 종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성령 강림 치유 대피정

일시: 6/13(금) 18시 ~ 14(토) 17:30

미사: 강우일 베드로 주교

강사: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김성기 안드레아신부,

김기화 도미니코 신부, 홍성남 마태오 신부,

양창우 요셉 신부

장소: 삼성산 피정의집 대강당 (숙식 무료)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별내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전교자, 성가대 경력자 우대

서류: 자원봉사 신청서, 교적 증명서, 이력서

접수: 이메일 petersmc@naver.com,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9089-2271 단장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고양 아람누리)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예수회 센터 여름방학 특강 - 7월 개강

근/현대 문화유산 교회사: 이진현 신부

월요무료피정: 의식성찰-그리스도의 시선: 이근상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사무엘기, 열왕기: 주원준 박사

예수의 윤리 이야기: 덕, 평화, 공동체: 박상훈 신부

인간과 창조: 바오로의 관점: 김민철 신부

각 6주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kr

필리핀 캠프 수학 교사 모집

업무: 청소년 인솔 및 수학 수업

대상: 7/12(토)~8/23(토) 출국 가능한 대학생

혜택: 영어연수경비 전액, 봉사인증서

문의: 053-593-1273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생활 속의 이나시오 기도 모임 23기 모집

이나시오 영신수련 10개월 과정. 오감활용으로

복음을 기도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만남

6/23(월) 10시: 오전 첫 모임

6/25(수) 20시: 저녁 첫 모임

장소: 중산 성당 202호

문의: 010-5570-6337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업무: 시설관리, 연선관리, 경비 등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접수: 6/20(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봉사자 모집

내용: 비행 청소년 멘토링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

대상: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에서 활동 가능한 60세 이하 신자

접수: 6/30(월)까지

문의: 031-856-0213~5 교정사목위원회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정규직(시설기술직) 신입 모집

홈페이지-성신광장-모집공고

문의: 02-740-9707~8

<https://songsin.catholic.ac.kr>**젊은이 기도모임 마음쓰다**

일시: 6/17~11/11, 1,3주(화) [10회]

장소: 서울 성북구 본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청년

회비: 2만 5천원

문의: 010-4882-9674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분야: 치위생사, 행정(인사, 총무)

문의: 02-2634-1760

※ www.josephclinic.org-공지사항 참조**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하계근무자 모집**

분야: 여름신앙캠프 보조지도,

야외수영장 근무 (가드, 간호사)

접수: 6/28(금)까지

이메일 service@hanmaum84.com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안내 · 기타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주말개장: 6/6(금)부터 매주(금~주일)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성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evergreentc.modoo.at**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2025년 생명수호 일러스트 공모전**

주제: 가톨릭 생명윤리에 맞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생명수호를 주제로 그린 순수 창작 일러스트

대상: 생명수호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가톨릭 신자 아니어도 가능)

형식: 1편 (A0 사이즈 / jpg, ai파일)

접수: 7/16(수)~31(목)

시상: 총 상금 500만원

문의: 02-727-2353 생명위원회 사무국

※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orlife.or.kr> 참조**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9/15(월), 10/17(금) 일본 나가사키 (4일)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495만원)

10/22(수) 산티아고순례길과 성모발현지 (13일, 495만원)

11/4(화) 이탈리아 (11일, 525만원, 아시아나 직항)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1/2(주일), 11/9(주일) 회년 이탈리아 (7일, 29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9/24(수)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0(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전화상담 가능

문의: 010-8146-7655 이찬 신부

(골롬반회, 심리학박사)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8/12(화)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숨결을 찾아서

중국 장춘, 길림, 백두산 연길, 용정, 도문

(5일, 150만원)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대한항공)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성심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미사**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

일시: 6/25(수) 10:30 묵주기도, 11시 미사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와 의정부교구 사제단

문의: 031-941-6238 민족화해위원회

모임**마음챙김 그림책 테라피 2기**

- 그림책으로 쓰다듬는 나의 마음

일시: 6/14(토), 6/28(토), 7/12(토), 7/26(토) 14:30~16:30

장소: 청년센터 에파타 (의정부)

대상: 만12세~40세 (선착순 8명, 무료)

내용 ▶



성령의 열매 (Fructus Spiritus)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여기서 그리스어 “열매”는 단수로 쓰였는데, 이는 성령의 여러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 ① **사랑**: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열매를 더욱 풍성히 얻으려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자주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 사랑의 마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 ② **기쁨**: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그분의 현존 체험은 우리 안에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도, 심지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든 하느님께 의지하며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 ③ **평화**: 성령의 열매인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게 환난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며, 하느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더욱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 ④ **인내**: 인내는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성장하려면 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모든 일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 ⑤ **호의**: 호의는 이웃을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친절함입니다. 성경에는 상대방에게 악을 되갚지 않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성인 성녀들의 희생을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이웃의 작고 사소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 호의는 더 커집니다.
- ⑥ **선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남이 곤경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재물을 관대하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하며, 봉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신과 관련되는 열매

- ⑦ **성실**: 성실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은 믿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⑧ **온유**: 온유는 약자나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힘입니다. 가난과 겸손을 담은 온유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면의 강한 힘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닙니다.
- ⑨ **절제**: 절제는 자기의 생각과 말, 감정과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감정과 욕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정화를 위한 기도를 바치며, 극기하는 보속을 실천할 때, 절제의 덕이 성장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좋은 열매를 소중히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 그분께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행 주 성 당  성모몽소승천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본당공지

■ 6월 사목협의회

일 시: 6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2025년 1월 - 5월 본당 재정 현황

수 입	계 정 과 목	지 출
18,535,000	교 무 금	
21,593,000	헌 금	
6,670,000	감 사 헌 금	
5,131,900	기 타 후 원 금	
2,913,000	기 타 목적 헌금	
6,484,000	특 별 헌 금	6,534,000
8,423,000	봉 헌 초	
1,112,167	이 자 수 입	
13,905,835	교 구 보 조 금	
	제 전 비, 전 교 비	4,599,200
	교 구 납 부 금	1,820,000
	단체보조, 행사	17,024,560
	사 제 생 활 비	6,200,000
	사 제 지 원 비	3,660,650
	자 선 찬 조 비	1,679,000
	수 도 광 열 비	17,174,590
	통 신 비	1,657,570
	급 여	16,900,000
	복 리, 건 강 보 험	1,903,180
	교 통 비	1,000,000
	소 모 품 비	6,638,730
	사 무, 도 서 인 쇄	2,401,550
	임 차, 용 역 비	2,535,080
	수 선 비	492,000
	비 품	1,350,000
	시 설 비	2,890,000
	지 출 합 계	96,460,110
	운 영 수 지 차 액	-11,692,208
84,767,902	합 계	84,767,902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0일 박하자 올리비아 11일 유병환 바르나바
13일 고백주 안토니오

우리들의 정성 (5월 26일 - 6월 01일)

교 무 금 11건 2,125,000원
주 일 헌 금 996,000원

■ 감 사 헌 금

김정희 30,000원 이성후 100,000원
김미경 10,000원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06월 08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06월 15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김순곤(라자로), 이경예(마르타)	